

언더우드가 추구한 연세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오인택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연세대학교는 높은 수월성으로 세계적으로 빛나고 있다. 이 수월성은 보편적 객관적 수월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며 이 수월성에 도취되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언더우드가 추구하였던 수월성을 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언더우드가 당시의 절대다수가 추구하였던 객관적 수월성을 추구하였더라면 오늘의 연세는 없을 것이다. 그가 추구하였던 수월성은 세계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수월성이 아닌, 어떤 특수한 수월성이었다. 이 특수한 수월성이 오늘날의 연세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이 수월성은 역시 언더우드와 그의 교육과 선교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고수하였던 특수한 평등성 이해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는, 필자가 주관적으로 표현해보면, ‘거룩한’ 평등성에 기초한 특수한 수월성의 추구였다. 보편적 수월성은 특수한 수월성의 실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더우드는 고집스럽게 거룩한, 따라서 특수한 수월성에 기초하여 보편적 수월성을 함께 추구하였다. 이러한 오늘의 연세를 가능하게 만든 언더우드의 고유한 신앙과 철학이 오늘날 연세교육에서 사라지고 있다.

연세의 교육이념은 ‘진리와 자유’이다. 여기서 진리가 연세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특수이며, 언더우드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평등성에 기초한 보편적 수월성의 실현이다. 따라서 이 진리로부터 발휘되는 자유가 참된 자유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유는 언제나 이미 세상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바다에서 유명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졌으며, 비연세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연세는 어떤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언더우드에게 기대어 살펴보고 싶다.

언더우드의 조선선교를 슬로건으로 표현하면 ‘저 낮은 곳으로’가 될 것이다. 이는 아무 것도 없고 암흑뿐인 조선을 긍휼히 여겨 구제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저 땅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갈고 닦아져서 보석이 되어 스스로 빛나고 나아가 세상을 빛내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 낮은 곳으로 임함은 곧 저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언더우드의 기도)

이를 언더우드는 확신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선교는 처음부터 그러한 색깔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서번역에 있어서 그는 생활언어로 복음을 한국인에게 전달하길 고집하였다. 그는 언어의 신분적 형식에 매이지 않고 내용을 살리는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하였다¹⁾.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그는 「그리스도신문」을 1897년에 창간하면서, “통전적 가족 기독교 신문”을(강연집 270쪽) 창간 목표로 내걸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신문이 다만 선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라 개화와 개량을 함께 목적하는 신문, 신자만을 독자로 꾀하는 신문이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 모두를 독자로 선취하는 신문, 이로써 가족과 민족이 통전적으로 개화되고 발전하며 나라가 기독교화 되어가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신문을 창간 목표로 내걸었으며,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였다.

위의 두 사례에서 그가 조선인의 마음을 개량하여 사회를 개량하고 이로써 세계를 개량한다는 원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소망과 확신이 그대로 교육선교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묶어서 슬로건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예수를 영혼에, 민족을 가슴에, 세계를 품안에”. 풀어보면, 예수를 저 암흑 속에 있는 무지한 조선 청년들의 영혼에, 예수를 영혼에 품은 조선 청년들을 통하여 조선 민족을 가슴에, 새로워진 조선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예수의 품안에!

1) 언더우드 기념사업회, 『언더우드 기념강연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240쪽. 다음부터는 ‘강연집 쪽수’만을 괄호로 밝혔음.

언더우드도 25살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목회경험도,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무런 학습경험도 없이 한국에 왔다. 그는 다만 선교사로서의 소명감과 열정만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소명감과 열정이 그를 언더우드가 되게 했다. 그리고 연세는 그 열매이다. 그의 소명과 열정 속엔 다른 선교사에게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확신있는 소망이었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헐벗고 굶주린 6살짜리 어린아이에서 20년, 30년 후의 그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를 교육 안으로 불러들이어 김규식이란 인물로 양육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미래를 선취하는 교육을 하였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의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고대부터 그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며, 현재의 고난을 위로받고 미래를 선취하게 만든 말씀 가운데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도 ‘집 짓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행 4:11)이다. 이처럼 언더우드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들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벧전 2:4-5) 거룩한, 선택받은 크리스천, 지도자,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건축자들은 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버린 돌, 아무 쓸모없는 돌임에 틀림없으므로 버린 돌,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 그 돌이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은 건축자들이 미처 보지 못한 가치가 그 돌 속에 들어있었으며,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이 잠재적 가치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엔 교훈이 있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대적 가치와 규범들에 체포되어있어선 안 된다. 왜냐 하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등한, 또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잠재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놓치지 않는 교육, 이 가치들까지 항상 포괄하는 교육, 그리하여 이 가치들을 갈고 닦아 빛나는 머릿돌이 되게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성서에 기초한 이와 같은 교육신념이 언더우드가 추구한 연세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전체로부터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인류전체의 머릿돌이 되었다. 물론 그들의 민족정체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그들은 모든 역경을 헤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육민족으로 빛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조적으론 같다. 한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았다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머릿돌로 쓰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는 세상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언더우드는 낯설 뿐 아니라 아무 것도 없고 캄캄한 땅으로 비쳐지기만 할 뿐 밝은 빛이라곤 전혀 없는 조선에 왔다. 그리곤 이 조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안영로, 161쪽). 선교사로 부름받고

이 땅에 왔으나, 그에게 펼쳐진 조선 앞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게일은 “무한한 희망을 품은 사람”, “부드러운 영혼”, 눈에 조선인의 눈물을 담았던 사람이라고 언더우드를 추모했다(자료집 V, 268쪽). 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그와 그렇게 끊임없이 충돌하였던 한국개신교 복음주의 연합회도 그를 “놀라운 능력과 강한 성품을 지닌 인물, ... 신념이 강했고 기질은 열정적이었으나, 정신은 보편적이었고 시야는 광대했다. ... 그는 그리스도의 뜻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보는 선견지명이 있었으며, 그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일했다”²⁾고 추모하였다. 언더우드의 부인에 의하면 그가 임종 때에 한 말은 “할 수 있는대로 조선 교회를 위하여 도울 것이라” 였다(기독신보 1917.6.13). 언더우드에게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었다(자료집 V, 244쪽). 언더우드의 부인은 남편을 “넓고 멀리보는 시야의 소유자로서 강한 개성을 가진 자는 누구나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심각하고 날카로운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 언더우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추도하였다(자료집 V, 249쪽). 언더우드가 만약에 다수가 추구하는 가치의 바다 위에서 함께 유명하기를 즐겼다면, 그는 동시대인이 보기엔 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이다. 한국선교초기에 조선과 미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연세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찾은 수월성은 다수의 상대적 평등성에서가 아니라 소수의 절대적 평등성에서 확인되는 수월성이었다.

언더우드는 낮은 곳, 교육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헐벗고 버려진 아이들의 교육에서 오늘의 한국과 연세교육을 선취하였다. “한국을 위해 기독교청년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고아가 되어 곤궁한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사생아들”을 받아들여 . . . 진리의 길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하고 “구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강연집, 40쪽). 그래서 언더우드는 1886년에 예수학당³⁾을 설립하고 거리에서 학생을 찾았다. 이렇게 하여 예수학당의 교육을 받고 김규식, 안창호, 이갑성 같은 큰 인물들이 나왔다.

2. 언더우드의 파격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글에서 언더우드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켜가면서 온갖 반대와 방해로 무릅쓰고 설립한 기독교연합대학(연희전문학교)의 교육정신을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교육정신은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 동료들이 그의 성품을 말하는 소망, 온유, 연합(Hope,

2) 이만열, 음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278쪽. 다음부터는 ‘자료집 V, 쪽수’만을 괄호로 밝혔음.

3)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97쪽. 기념강연집 449쪽, 또는 예수교 학당(자료집 255쪽), 예수교리학당(강연집 45쪽)으로 불리었다.

Gentleness, Unity: Horace Grant Underwood)에서도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 아래서 구체적 개념을 찾아본다면, 이는 수월성과 평등성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 개념은 학생선발에서 교육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정신과 색깔을 결정짓는 중심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추구하였던 수월성과 평등성은 세상이 추구하는 수월성과 평등성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이 언더우드가 추구한 구별된 수월성과 평등성은 소명과 신앙에 의하여 뒷받침된 거룩한 수월성과 평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즐기차게 연희의 교육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작은, 지역적인, 기초교육만 실시하는, 종파적인 신앙교육기관에 선교사의 의식이 가있던 시대에 언더우드는 그러한 시대적 의식의 흐름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것도 그의 표현대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땅인 조선에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낚는 교육이 민족과 국가를 낚는 거대한 역사가 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반 종합 대학을 서울에 설립하기를 고집스럽게 추진했다. 이는 과연 엄청난 파격이었다. 파격이란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다. 그럴 수 있으려면 절대다수가 추종하는 척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척도를, 비록 그것이 절대다수의 객관적 척도 앞에서 설자리가 너무나 좁고 험해서 심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할지라도, 그 척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고집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언더우드는 그랬다.

언더우드는 서울에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평양에 하나의 연합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시의 선교본부의 합리적 견해들과 수년간에 걸친 농도 짙은 충돌을 감내하면서 관철하였다⁴⁾. “그의 위대한 믿음, 왕성한 활력, 넘쳐흐르는 열심,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자료집 V, 265쪽)가 없었더라면 대학은 설립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소신을 엿볼 수 있다. 내가 한국에 세우려는 대학은 예수학당이다. 예수를 가르쳐야 조선의 지도자들이 양성된다. 서울에 있어야 대학의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받은 학생들은 세속적 유혹이 많아도 이겨낼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인 서울에 대학이 있어야 국가의 전반적 현실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연세는 그렇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대학설립문제를 둘러싼 선교부 내의 갈등과 총독부의 다양한 압력 가운데 1915년 3월 4일에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하고 다음 해인 1916년 10월 12일에 사망하였다. 대학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숱한 갈등과 외압에 시달린 언더우드의 건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1917년 4월 7일에 ‘연희전문학교’라는 교명으로 대학을 인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에 연세대

4)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의 이상과 실현”. 언더우드 기념사업회 편, 『언더우드 기념강연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401쪽 이하; 민경배, “언더우드와 연세정신”. 같은 책, 457-468쪽.

학교는 언더우드가 목숨을 바쳐 설립한 학교이다. 그리고 거기엔 거룩한 수월성과 평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설립정신이 있었다. 지금 그 정신이 흔들리고 있으며 바래졌다.

연세대학교는 처음부터 일반교육을 베푸는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초교과적 기독교 종합대학을 지향하였다. 1917년 총독부가 연희전문학교로 설립을 인가한 학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조선교육령에 의한 전문학교에 기초하여 조선인 남자에게 문학, 신학, 농학, 상업학, 수학 및 물리학, 응용화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칙 제1조). 이 교육목적에서 우리는 언더우드의 교육구상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연대는 문학과 신학이라는 두 큰 바탕 위에서 학생을 조선의 농업, 상업, 자연과학, 그리고 화공학을 시작으로 한 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길러낸다. 언더우드는 선교사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으론 신학이 먼저 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인문학적 교육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먼저 문학을, 그리고 신학을 연대의 두 교육적 토양으로 삼았다. 신학 분야에선 학생모집의 첫해에만 두 명을 선발하고 그 후엔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이미 평양에 신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는 이를 의식하고 의도하였다. “민족과 교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연세대학교 100년사)을 위하여 성경과 기독교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신학전공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형식으로만 이는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연대의 교육이념은 진리와 자유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이 말씀에 따라 교육의 목적은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이다(정관 제1조). 언더우드 부자는 연세의 교육이념에 따라 철저히 교육하기 위하여 최고의 교수를 모셔오길 힘썼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학자(백남운, 이순탁)이건 자본주의 경제학자(조병옥)이건 관계없이, 그가 연세의 설립정신을 공감하고 존중하면 교수로 채용하였다. 이는 당시에 시대를 뛰어넘는 파격이었다. 오늘날 그러한 파격이 있어야 한다!

3. 인간인식의 전개와 교육평등성

한국의 교육과 교육학에서 평등성은 수월성과 더불어 공교육의 두 중요한 가치로 기능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학교교육경험 속에 이미 피와 살이 되어 깊이 들어와 흐르고 있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학교교육의 자명한 기본개념이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학, 외국어, 국제 등 여러 특성화고교들을 비롯하여 일정한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교들이 전망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대학생선발제도는 여전히 수월성으로 확인되는 계량적 평가의 지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글로벌한 상대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매년마다 발표되는 순위에 체포되어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여준다. 평등성은 교육의 본질적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이다. 이 개념의 기초하여 수월성이 검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훼손, 패리될 수도 있고 본질에 있어서 바르게 정립, 실현될 수도 있다. 잘못된 평등성의 개념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처음부터 잘못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다.

교육의 역사는 인간관의 확대와 심화의 역사이다. 인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평등성에 관한 교육의 차원이 변화되어왔다. 인간관이 제시하여주는 이해의 범위가 교육의 한계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은 이를 초월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의 역사는 평등성의 이해의 확대와 심화를 통하여 교육의 대상과 내용과 형식을 개선 내지 개혁하는 걸음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는 전통에 대한 부정과 도전이었기에 극심한 진통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교육은 발전하여 왔다.

이점이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다. 인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현상도 없다. 그 대표적 예를 하나 들면, 인간을 유형으로가 아니라 개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문예부흥과 인본주의시대로 접어들면서이다. 그 전엔 중세기엔 물론이요 고대에서도 인간은 다만 유형으로 이해되어졌을 뿐, 인격적 개인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교육학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는 고전고대 그리스의 인간인식에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하게 된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인간은 자유시민(demos) 남성이었다. 여성은 제외되었다. 물론 그의 글에서 우리는 여성도 원칙적으로 교육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합리적 추론을 읽을 수 있으나, 거기서 그치고 있다. 노예와 천민(ochlos), 외국인, 장애인 등은 교육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그리고 물론 자유시민도 국가에 쓸모 있는 시민으로 확인되고 있는 동안에만 교육의 대상이었다. 국가라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인간의 존재가치 유무가 결정되던 시대에 평등성은 국가라는 절대적 척도로 비추어보아 동질적 형태와 색깔로 확인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가치였다.

Platon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완전한 교육적 설계도에서 철인이 군주가 되어 통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적 수월성은 철인이었다. 고대에서 수월성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호머의 시대에는 영웅과 무사가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요 수월성이었다. 교육의 이념도 이를 관념화한 미선성(美善性 kalokagathia)이었다.

중세기는 인간을 유형으로 인식한 범례적 시대였다. 중세기는 인간을 다만 신부, 귀족, 시민, 농노로 인식하고 처리한 신분적 계급사회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적 신분계층을 양성하기 위한 수도원, 성당, 감독학교와 세속적 신분계층을 위한 기사도교육, 그리고 자유시민계층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조합학교가 있었을 뿐, 농노를 위한 학교나 교육은 없었다. 이렇게 천년이 흘렀다. 아니, 중세의 봉건적 사회구조가 지식인들의 의식구조에서 극복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이므로, 그 때까지도 농노는 여전히 교육에서 제외되어있었다. 계층과 성별을 비롯하여 종파, 인종, 장애인,

등, 온갖 유형과 영역에 의한 가름과 제한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주장하는 글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시대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Comenius를 들 수 있다. 그의 『대 교수학』 (Didactica magna)에서, 보다 이론적으로 치밀하고 심도있게 『범교육』 (Pampaedia)에서 Comenius는 이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주장하였다. 17세기까지 서구에서 교육의 대상은 특정한 계층에 속한 남자아이였다. Comenius는 이러한 일상적 교육이해의 세계를 그 인식의 근본에서 뒤집는 시도를 하였다. 모든 인간은 젊었거나 늙었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귀족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관계없이, 짧게 표현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모두 교육에서 제외되어선 안된다⁵⁾.

Comenius 후에 한 세기가 흘러서 박애주의 교육사상가들이 박애주의학교를 설립하고 계층을 넘어서서 학생을 모집하며 고전어를 가르치기 전에 국어를 가르치고 실제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벌였으나, 교회와 국가의,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지배계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박애주의 교육자들은 Rousseau와 Pestalozzi같은 불세출의 위대한 교육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삼아 학교교육문화의 전체적이고 철저한 개혁운동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박애주의에 의하여 동반되어진 새로운 학교교육문화운동은 바로 교회와 국가의 지배세력에 의하여 탄압되었다.

여성을 학교교육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연대도 대략 17세기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가 남학생만 받아드리고 여학생에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굳게 닫아걸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 여학생의 입학에 위하여 교육운동을 벌이던 베를린의 여성단체가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여 여학교를 설립한 것이 19세기 말이었다. 대학교의 문도 여성에게는 굳게 닫혀있었다. Tuebingen 대학교를 예로 들면, 튀빙겐 대학교 의과대학이 1892년에 마리아라는 뛰어난 수재를 비정규청강생이란 신분으로 조건부 입학시킨 것이 최초이다. 남성들의 학문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범례를 하나 더 들면, 1900년에 출판된 후에 8년 동안 9판을 거듭하며 학계의 권위로 우뚝 섰던 뢰비우스의 유명한 책 『여성의 생리학적 정신박약에 관하여』 이다⁶⁾. 그는 이 책에서 여자들은 모두 정신박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여자의 정신박약은 생리학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유대 민족도 남아에게만 bar mitzva(계약의 아들)라는 성년식을 주전 1세기경부터 회당에서 예배의식을 갖추어서 베풀어왔으나, bat mitzva(계약의 딸)라는 여아의 성년식은 여성의 많은 항의와 요청을 거쳐서 18세기에 와서야 개혁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것도 예배의식으로가 아니라 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래서 bar mitzva의 절정은 회당에서 예배 시에 두루마리 토라를 낭독하는 순서에 참여하는 것인데, bat mitzva는 토라 낭독 순서가 없는 평

5) Johann Amos Comenius, Pampaedia. Heidelberg 1965, S.15.

6) Paul Julius Möbius, Über den physiologischen Schwachsinn des Weibes. Erstdruck 1900, 9. Auflage 1908.

범한 생활축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간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 심화하는 일은 대단히 느리게 그리고 지배계층의 엄청난 저항을 받으며 대단히 어렵게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인간인식의 역사적 전개에서 우리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인간인식의 시대적 지평 안에서 추구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인간이해가 인간의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조건이요 한계였다.

4. 세상적 평등성 개념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육의 수월성은 평등성 개념에 기초하여 추구되어왔다. 그리고 평등성은 거칠게 표현하여 성경적 개념과 세상적 개념으로 이원화되어 전개되어왔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나, 이성과 과학의 세계가 영성과 지혜의 세계를 점차로 구축하여 가면서 세상적 개념이 성경적 개념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를 잠깐 일별할 필요가 있다.

세상적 평등 개념의 시초를 우리는 호머 시대에서 볼 수 있다. 호머 시대에 평등은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장물을 분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같은 양과 같은 질이었다. 평등은 장물의 균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여기서 사용한 그리스 어는 isos 또는 homoisos 이다. 이 두 말은 혼용되고 있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구별하긴 어려우나, 대체로 isos는 대상들의 형식적 객관적 측정가능성과 확정가능성의 관점에서 평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homoisos는 내적이고 본질적인 평등성을, 다시 말하면 특성의 일치, 종과 류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평등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또는 일정한 관점 아래서 부분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것(동일성)과 다른 것(상이성)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동일성은 긍정과 의미로, 상이성은 부정과 무의미로 작용하였으며 유사성은 상대적 긍정과 의미로 간주되었다.

Platon은 호머적 평등을 정의(justice)의 개념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욕망, 기개, 지혜의 세부분으로 구성된 하나로 보았다. 그는 인간 개개인의 능력의 상이성에 눈떴다. 그래서 국가라는 전체로부터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인 시민을 보고 이 둘의 관계에서 정의와 평등을 모색하였으며,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인 인간들의 영혼의 상이함에서 다름의 의미를 천착하여 교육적 평등성의 실현을 모색하였다. Platon에게 있어서 평등은 각자의 영혼에 알맞은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첫째로 전체에 유용한 삶을 살고, 둘째로 자신의 삶도 의미 있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삶의 세가지 형식들인 생산직, 방위직, 통치직은 가치체계(hierarchy)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세가지 삶의 원형태들의 개념이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정의요 평등이다. 그렇지 않고 남의 삶을 넘보고 집적거리는 것은 불의이다. 그러므로 각자

가 각자의 영혼의 상태에 알맞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국가에 봉사하고 이웃에 유익한 시민이 되는 것이 정의요 평등이다. 생산직에 적합한 영혼이 방위직이나 통치직을 넘보고 수행하거나 방위직이나 통치직에 적합한 영혼이 생산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는 그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모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Platon에 있어서 평등성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아름답고 선하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상태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결과로 실현된 모습에서 확인되는 정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진리는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전체적인 것이며, 전체적인 것은 인간 개개인이 자아를 완전히 실현한 상태이다. 아직 개인으로서의 인간 이해가 없던 시대에 이러한 이해는 참으로 탁월하다. Platon에 의하면 아름다운 신체가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혼이 영혼의 선함으로 신체를 비로소 아름답게 만든다⁷⁾.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가 목수이던, 군인이던, 철인 군주이던 관계없이 모두가 그 다름에 있어서 완전하므로, 평등하다. 그래서 Platon의 교육에서 인간은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교육을 받으며 출발해서 교육의 과정에서 각자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교육을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 까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을 때까지 받고 국가의 시민으로 배출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국가는 철인이 통치하는 정의로운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고, 시민은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가는 Platon의 평등성 인식은 Aristoteles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정립된다. Aristoteles는 평등성을 비교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비교는 평등성과 관련하여 사물을 평가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사유이다. 비교는 사물을 동일성, 유사성, 상이성으로 정리하고 동일성을 중심으로 의미의 분류체계(hierarchy)를 만들고 이를 일반화하는 사유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동일성의 큰 범주 안에서 평등성을 확인하고 주장하여 왔다. 동일성은 같음으로 절대적으로 가치있다고 인정받고, 유사성은 비슷함으로 상대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고, 상이성은 다름으로 전혀 의미없다고 보고 무시된다. 그리하여 소외라는 정치적 죄악이, 다른 말로, 죄의식의 정치적 무감각이 사회생활의 비평화적 기초가 되었다.

Aristoteles의 평등 개념은 수학적이다. 수학적 평등은 수적 개념이다. 같은 값은 일치한다. 모든 현상은 반성(reflection), 대칭(symmetry), 또는 변화(transitivity) 등에 있어서 같은 값으로 확인되는 한, 평등하다. 모든 상품엔 적절한 값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교육의 내용과 결과는 적절한 값으로 확인되는 상품으로 드러난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조건 아래서 비싼 상품으로 확인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 평등성의 교육화, 교육적 평등성이 비판을 불허하는 절대적 가치로 우뚝 서서 교육의 집을 이루고, 이 집을 통하여 비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을 어

7) Platon, ΠΟΛΙΤΕΙΑ Der Staat. Bearbeitet von Dietrich Kurz. Darmstadt 1971, 403d.

떻게 해서든지 사기만 하면, 그는 성공적 삶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정의이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평등성은 둘 이상의 대상에게서 같은 것을 찾아서 이를 평등하다고 확인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리하여 이 개념이 교육에서 무반성적으로 사용된 결과, 잠재능력, 관심, 경험, 학습 수준, 가정문화, 등이 서로 다른 인간을 같은 교육의 조건 안에 집어넣고 이를 교육적으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강제하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평등성(isonomia)은 너무나 분명하게 비교육적이다.

Kant는 평등성을 다르게 인식했다. 우리가 잘 아는데로 정언적 명령((定言的 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과 계몽의 개념이 Kant의 평등성 인식에서 중요하다. 계몽이란 타인의 이성에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성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는 계몽을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성으로부터 나아감”⁸⁾이라 했다. 여기서 계몽은 평등의 개념으로 드러난다. 타인의 힘, 재물, 지식, 권력, 지위 등, 모두 통칭하여 타인의 낮은 이성(低能)에 종속,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결정하는 능력은 인간의 질을 절대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주인이 되어, 자아와 타인을 절대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전제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Kant의 윤리적 기본원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언적 명령에서도 평등성의 개념이 준동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모든 인간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없이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뿐이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인식에는 모든 인간의 이성의 무조건적 절대적 평등성 인정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인격을 그 자체의 상이성에 있어서 나의 인격과 절대적으로 동등시할 뿐, 그에게 내재되어있지 아니한, 그러나 나에게 있는 지식, 재물, 권력 등, 어떤 낮은 척도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세상은 평등성을 같음에서 찾으나, 성경은 다름에서 찾는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한 물건이나 유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평등은 계량적, 상대적, 객관적 개념이요 정의의 문제였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평등은 질적, 절대적, 주관적 개념이요 구원의, 교육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아실현의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의 관점에서 평등의 개념은 세상적 이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낮설다. 예를 들면, 눅 9:46-48을 보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8)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Kant Werke. Band 9, Darmstadt 1971, S.53.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은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의 세상에서 늘 있어왔으며 또 있어갈 것이다. 어른의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척도는 어린이의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척도완 질적으로 다르다.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서 ‘작은 자’는 척도의 전환을 강조하는 언어이다. 어린이는 아직 아무 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무엇으로든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연그대로의 가능성이요, 어른의 행동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린이의 행동방법으로 영혼과 육체의 모험을 함으로써 무엇으로 되어가는 필연성이 확인되는 존재이다.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큰자’의 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는 기성의 모든 가치체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5. 기독교교육적 평등성의 척도와 규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연합대학이다. 따라서 교육적 평등성의 척도와 규범도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이를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반성해본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를 우리 안에서 똑같은 환경조건 아래서 양육할 수 있다. 아니면 99마리를 우리 안에 놓아두고 길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하로 나설 수 있다. 어느 것이 평등성인가?

여기서 크게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길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생각이다. 여기엔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 전제되어있다.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교육의 평등성은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있는,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육 밖에 있는 인간을 교육 안으로 끌어 들여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은 교육 없는 현존에 처해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 눈뜸으로부터 생동하는 개념이다. 레익스의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자선학교운동을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말 잘듣는 양 99마리에 대한 교육적 평등성이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양들이 아직 ‘착한’ 양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다만 주인이 베풀어준 같은 성장조건에 순응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조건 아래서 경주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하다’ 라고 한다. 이러한 평등성(egality)은 그러나 교육적 평등성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정책에서 사람들은 주로 이러한 객관적 평등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두의 재료, 디자인모양, 크기, 등이 같다고 할 경우에 사용하는 동질동형태적 평등성을 인간의 교육에 맹목적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패리시키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는 모두 성장수준, 잠재능력, 경험, 취향, 관심, 식성 등이 다르다. Schleiermacher의 표현을 빌리면, 양들은 “인간학적 전제조건들의 비결정성”⁹⁾ 상

9) F. E. D. Schleiermacher, Ausgewählte Pädagogische Schriften. Bes. von Ernst Lichtenstein.

태에 있기 때문에, 양들의 각기 다름에 주목하여 양떼를 이끌어야 선한 목자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선한 목자적 평등성(equality)은 주관적 평등성이다. 주관적 평등성의 특성은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동질성과 동형태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비동질성과 비동형태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같은 규범, 가치, 척도 아래 있는 현상이어서 상대적 비교와 평가가 가능하다.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하다는 논리적 진술이 성립된다. 그러나 후자는 다른 규범, 가치, 척도 아래 있는 현상이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불가능하고 일회적이며 절대적 평가만 가능할 뿐이다. 경험적으로 검증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적 일회성과 고유성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주관적 평등성이 그러나 교육적 평등성이다. 객관적 평등성은 교육적 평등성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주관적 평등성의 바탕 위에서 객관적 평등성이 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계획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 교육 안에서 도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교육의 이념, 목적, 목표, 내용과 과정, 방법과 평가를 객관적 평등성으로 포장하여 펼쳐놓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받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의 영혼을 경직시켜서, 잠자는 영혼을 눈뜨게 하기는 커녕 맹목적 학습기계로 만들고 심한 경우엔 자살에 이르도록 몰아간다. 이러한 교육에서 우리는 교육이 과학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교육에서 지혜를 구축하였음을 보게 된다. 교육과학으로 만들어진 교육의 집 안에선 각성과 회심, 소명과 헌신, 상상과 창조에로의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지혜의 용광로 안에서 과학의 물질을 녹여내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평등성의 규범은 두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의 편찬이다. 다른 하나는 이 교육내용을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이다. 후자에서 평등성의 규범은 빛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모든 인식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성경읽기 교육은 모든 교육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이다. 절대로 배제되고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교육의 목표요 내용이다. 이는 기독교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의 ‘평등성’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선한 목자적 접근을 통하여 수월성이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적 평등성은 생명의 일회성, 비교불가능성, 고유성에 자리잡고 있는 개념이다. 반면에 교육적 수월성은 각 생명이 자신의 고유하고 일회적인 가능성을 상이한 역사적 조건 아래서 특수하게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실현함에 근거하고 있는 개념이다. 수월성의 개념은 따라서 잠재능력과 교육필연성에 대한 선택적 도전을 전제로 한다. 어떤 잠재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를 수월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와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수월성은 실현된다. 그러므로 무한히 다양한 잠재가능성에 따른 무한히 다양한 수월성 실현의 지평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도화된

Paderborn 1959, S.51.

교육은 수월성 실현을 다만 제도와 형식의 틀 안에서 도모할 뿐이다. 그래서 상대화되고 객관화된 획일적 수월성이란 지극히 과격한 형태가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되고 절대화된 수월성이란 지극히 개별화된 형태도 예외적으로 인정 또는 묵인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태인의 교육에서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월성은 절대적 수월성이다. 우리는 이 수월성에 이르도록 하는 구조를 특수하고 주관적인 수월성이 항상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바탕 위에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수월성이 장려되는 구조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6. 달란트의 비유에 담겨있는 평등성과 수월성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기독교교육적 평등성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말씀을 만나게 된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쉽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 유명한 비유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달란트의 비유는 절대적 평등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월성이 나오니, 절대적 수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마 25:14)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이 다섯, 둘, 하나는 단순히 계량적으로 읽어진 안된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분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이 모두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전제 아래서 다섯, 둘, 하나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라면 이는 평등하다. 따라서 다섯, 둘, 한 달란트는 비교개념이 아니라 절대개념이다. 여기엔 주인의 특별한 뜻과 종된 자들의 개별적 능력이 연관되어있다.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린 모른다. 그 분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분은 그리곤 멀리 떠났다. 먼 훗날에 그 분이 돌아오셔서 그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여”(16)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확인하실 것이다. 이 기간은 평생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각자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알맞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동안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 거두어라. 이것이 평등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등성은 비교불가능하고 고유하며 절대적이다. 그 분의 뜻은 각자에게 주어진 절대적 평등성을 갈고 닦는 일이다.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여 두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18). 두 사람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23) 라는 상을 받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26)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30) 라는 벌을 받았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보자. 그는 꽤 똑똑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는 세속적으로 약삭빠르다. 처세 추구적이다. 그래서 그는 상대적 비교의 오류에 빠져들었다. 그에게 그의 능력에 따라 알맞게 주어진 달란트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것인데,

그는 이 절대적 은사에 눈뜨지 않고 세상의 척도에 따라 계량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오류에 빠져서 그의 삶은 그의 달란트와 함께 땅에 파묻혔으며 썩어버렸다. 그도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을 규범과 척도로 삼은 결과 그는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주인의 평가는 엄정하였다. 세상적 평등성에 체포되어 수월성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결과는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썩어버리게 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각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은사와 과제를 받았다. 각자의 수월성은 달란트의 고유하고 상이한 실현으로 드러난다. 다양성 안에서 단일성이 꽃피어난다. 주인이 멀리 떠나있다는 사실은 종이 자신의 고유한 책임과 주도로 자신의 행위를 하도록 함을 목적하고 있다. 교육은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맡겨져 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 형식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교육하고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다. 주인은 멀리 떠났다. 따라서 아무리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육하고 교육받고자 해도 지나치게 철저할 수 없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가의 결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 “악하고 게으른 종아”(26)로 확인될 것이다.

달란트의 색깔은 비교불가능하고 고유하며 절대적이다. 여기에 상대성이 설 자리는 없다. 한, 두, 다섯 달란트는 비교개념이 아니라, 절대개념이다. 하나님이 인간 각자에게 주신 신체적, 감성적, 지적, 영적 은사, 소질, 능력과 태어나게 하신 혈통, 가문, 지역, 언어, 문화, 국가는 절대적이다.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를 인간은 자의적으로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보기를 훈련하였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받은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상대적 의식구조에서 모든 비극이 싹튼다. 절대적 개념으로 엄격하게 보면 ‘열등감’, ‘빈곤감’이란 없다. 열등은 다만 감(感)으로 있을 뿐이다. 인간은 객관성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잘못된 규범과 가치로 세계를 상대화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분대를 세우지 아니하신 곳에서 인간이 어떠한 구분대도 세워선 안된다. 그러므로 너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대화하여 갈고 닦아라. 그리하면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너 자신을 절대적 평등의 교육을 통하여 최적으로, 다시 말하면 절대적 수월의 경지에 이르도록 실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의 삶은 행복할 것이며, 사회에 이로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거둔 것 위에 너에게 상을 덩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파묻고 도야하지 않으면, 주신 달란트까지 빼앗으실 것이다.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의 빼앗김, 상실로 체험되는 이것이 죄요 타락이며 상대적 평등과 수월의 결과이다. 비교와 경쟁의 대상은 너 자신이다. 너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너 자신과 경쟁하라. 그리하여 거기서 네가 이루어낸 것, 이것이 너의 수월성이다. 기독교교육은 절대적 평등성과 절대적 수월성을 추구한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생명은 비교불가능성, 일회성, 고유성의 생명이다. 인간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일정한 사회와 문화공동체 안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다가 가는 역사적 존재이므로 여기에 역사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교육엔 처음부터 절대적 경쟁만 있을 뿐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상대적 경쟁만을 경쟁으로 보고 경쟁의 가치와 척도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찾아왔고 규정하여 왔다. 기독교적 교육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잘못된 인식, 출발점, 개념 등을 바로 잡아, 상대적 경쟁의 트랙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을 절대적 경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7. 범례: 유대민족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알맞게 주어진 가치들을 가지고 경쟁하라! 이다. 이는 절대적 경쟁이다. 이것이 척도다. 절대적 경쟁은 절대적 긍정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리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를 갈고 닦아라. 이러한 확신, 선택받았다는 믿음이 절대적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생활과 교육으로 잘 침전시켜 실천하여온 민족이 유대민족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대로 유대민족의 교육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라 학습이다. 그리고 모든 교육방법의 중심엔 Chavruta 교육이 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학교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둘씩’ 짝지어 파트너를 이루고, 이 둘이 마주 서서 묻고 답하고 토론하며 익히는 토라 학습법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달란트로 수월의 경지에까지 갈고 닦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교육에도 보편적 평등성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강조되었다: “여섯살에 성경을, 열 살에 미슈나를, 열세살에 완전한 24시간의 금식을”¹⁰⁾. 모든 유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보편적 교육내용의 강조는 후에 5살엔 토라를, 10살엔 미슈나를, 15살엔 탈무드를 학습하기 시작하고 18살엔 결혼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청소년이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에 낯설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되면, 부모와 지도자들은 이것이 그의 달란트인가 살펴보고 수용하며 지원한다. 부모의 힘이 모자라면 가족과 지파가 나서고, 그래도 지원이 부족하면 민족과 국가의 공회(Knesset)가 함께 협력한다. 이러한 체제를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의 힘든 삶을 영위해오면서 더욱 공공히 다졌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로 유대인은 수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성장세대의 교육에서 절대적 평등성에 기초한 수월성의 실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상에 약 1,700만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추정하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1/3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계와 예술계를 선도하고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대 민족의 교육제도를 보면 보편적 평등성의 보장 위에 일반적 수월성의 교육

10) Günter Stemberger, Das klassische Judentum. Kultur und Geschichte der rabbinischen Zeit. München 1979, S.110. 반복, 학습, 가르침을 의미하는 희브리어 Mischnah는 토라에 관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책이다. 미슈나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사, 절기, 결혼, 민형법, 제사, 청결의식 등, 글자 그대로 유대민족의 삶 전반적인 계명에 대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망라하고 있다.

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모든 어린이는 Chädär 라고 하는 어린이 학교에서 토라를 익히고 기초적 직업교육을 받는다. 그 후에 우수한 어린이는 선발되어 Jeshibah 라고 하는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예시바의 교장을 Gaon이라 하는데, Gaon은 학계의 최고 권위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Gaon들의 회의는 글자 그대로 Sanhedrin의 권위와 기능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민족과 국가가 교육의 수월성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고 있음을 본다.

유대민족의 교육은 종교교육, 직업교육, 군사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유대인은 남녀가 모두 예외없이 이 세 영역의 교육을 받는다. 이는 생존과 생활을 위한 일반적 인간도야의 내용이요 보편적 수월성이다. 여기서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에 유대 민족에서 확인가능한 뛰어남을 보편적 수월성으로 표현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특수적 수월성으로의 교육이 철저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가족, 지파, 그리고 생활환경에 따라 직업교육은 어부, 목수, 직조공, 양치기, 등으로 세분화되고, 군사교육은 칼, 창, 무릎매 돌 등으로 전문화된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다. 다윗만 돌 던지기를 잘했던 것이 아니다. 유다 지파는 군사교육을 무릎매 돌 던지기로 전문화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모든 청소년들이 돌 던지기 선수였다. 다만 다윗에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특수적 수월성과 만난다. 보편적 수월성의 바탕 위에서 특수적 수월성이 도야될 때에 수월성은 그 수월의 빛을 발휘하게 된다. 다윗에겐 신앙, 목동, 그리고 무릎매 돌이 수월의 경지에서 하나로 혼용되어 다만 뛰어난 양치기 소년에서 머물지 않고 군인, 시인, 음악인, 예언자, 통치자가 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언더우드는 무지 안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교육 안으로 끌어들여,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삶으로 평생을 계속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추구하였다. 나는 그의 교육선교적 일생에서 유대민족의 교육을 본다. 유대민족의 교육을 한 마디로 가정중심의 종교교육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개념 안에 다른 교육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삶을 새롭게 하고 평생동안 동반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여, 먹이고 재우며 가르쳤다. 이를 우리는 다시 봐야 한다. 오늘날 교육은 점점 더 생활과 괴리되어져가고 있다. 오늘날 시대적 상황 아래서 교육이 추구하여야 할 평등성의 방향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담겨있는 교육의 본질과 개념, 방법과 형식을 현대의 생활문화 안에서 재구성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이 누구든지 그 자신의 고유한 잠재능력을 갖고 닦아 자신만의 특수한 수월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이웃에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과 가족의 삶도 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것들, 이를 통하여 학교가 빛나고 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며 민족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모두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8. 맺는 말

지금까지 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연세를 설립한 언더우드의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두 개념을 인식하는 주도적 관심이 점점 더 성경적 관심에서 세상적 관심으로, 절대적이고 특수적인 인식에서 상대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으로, 그리고 주로 주관적 인식관심으로 옮겨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하고 다른 모든 가치들은 상대화하여 버리는 가치판단의 구조적 비평등화는 어떤 가치도 그 가치를 본질에 있어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 결과적으로 모든 가치들이 비가치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현실이다.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세포생명의 탄생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진다. 진리와 자유의 교육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치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어야(시편 92:12-14) 한다. 교육에서의 평등성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육 안에서’(en paideia kyriou 엡 6:4) 각자가 그로부터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자아를 수월의 경지까지 도야하도록 하는 열쇠개념이다.

연세대학교는 여전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겨레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정갑영)이다. 이제 연세대학교는 세계적 대학이 되었다. 글로벌 연세는 “the first the best”(김한중)의 경주를 끝내고 “제3의 창학”을 꾀하며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정갑영) 있다. 연세가 이 걸음으로 보편적 평가의 잣대에 체포되어 세계적 명문이라는 쏘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만 해선 안될 것이다. 처음 언더우드가 가졌던 신앙, 열정, 그리고 비전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성경적 평등성과 수월성에 기초한 교육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세계적 명문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제안을 범례적으로 하며 연세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관한 반성을 마치려 한다.

언더우드의 정신에 기초하여 연세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큰 지도를 만들자. 그리고 그 지도 안에서 보편적 수월성과 평등성의 가치들도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하여 연세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린 결과 세계적 대학으로 확고하게 우뚝 서게 하자.

우리는 거룩한 수월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학생선발제도와 장학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 결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평등성과 수월성이 이 제도 안에 포괄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도 탁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어와 SCI, SSCI, SCIE 등, 하나의 글로벌한 잣대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를 중지하고 교수 각자와 연구영역 각각의 비교불가능하고 고유한 수월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글로벌한 잣대가 의미있게 수용되도록 연세 고유의 평

가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 수월성과 평등성의 추구로 짧은 기간에 연세를 세계적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거룩한, 따라서 세상적 잣대와 구별되는 특수한 수월성과 평등성의 추구는 연세를 결국엔 세계적 대학으로 우뚝 서게 할 것이며, 한 번 우뚝 서면 지속적으로 세계적 대학으로 빛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후자가 연세가 추구하여야 할 정도이다. 왜냐 하면 후자의 추구는 전자를 자연스럽게 실현되게 하지만, 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안형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쿤란 2002.

언더우드 기념사업회, 『언더우드 기념강연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연세 대학교 출판부 2005.

오인택, 『파이데이아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 학지사 2001.

이만열, 음성득 편역, 『언어우드 자료집 V』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연세국학총서 48).

Lau, Israel M., Wie Juden leben. Glaube Alltag Feste. Aus dem hebräischen übertragen von Miriam Magall. Gütersloh 1988.

Möbius, Paul Julius, Über den physiologischen Schwachsinn des Weibes. Erstdruck 1900, 9. Auflage 1908.

Platon, ΠΟΛΙΤΕΙΑ Der Staat. Bearbeitet von Dietrich Kurz. Darmstadt 1971.

Stemberger, Günter, Das klassische Judentum. Kultur und Geschichte der rabbinischen Zeit. München 1979.